



2007년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된 한 해였다. 주택 거래시 양도차익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1가구 2주택자가 1주택을 매각할 경우 55%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 결과 변경된 세금에 적절히 대처를 했던 다주택자들은 2006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 수익을 극대화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과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2007년이 마무리 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 사항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끝나는 것이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란 IMF 이후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과세당국의 필요에 의해 한

주택 7년 보유시 양도차익 21% 공제

누진세율 과세 3년이상 주택 내년 이후 팔아야 유리 '과세특례 적용 2주택자' 年内 처분해야 양도세 감면

시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1999년~2002년에 미분양된 신축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한 가구가 신축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고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하지만 작년 8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이러한 특례제도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일몰시한이 정해졌다. 만약 특례법 적용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들이 올해 안에 일반 주택을 매각할 경우 특례법 적용 주택은

없던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지만, 내년 이후 일반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로 부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음) 2008년부터 바뀌는 세법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세분화되고, 부부간의 증여한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

제란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에 따른 프리미엄을 주는 것으로 주택 3~5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 5~10년 보유시 15%, 10~15년 보유시 30%, 15년 이상 보유시에는 45%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내년 1월 이후에는 3년 보유시 10%, 4년 보유시 12%, 그 이후에는 1년이 증가할 때마다 3% 증가하여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주택을 7년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올해까지는 장기보유특별

공제가 양도차익의 15%였지만, 내년 부터는 21%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3년 이상 보유한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주택이 있을 경우 2008년 이후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 내년부터 배우자에 대한 증여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 이 증여한도를 이용해 적극적인 세테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 부동산이 있을 경우 증여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한다면 증여세는 내지 않으면서 임대소득세가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양도시에도 양도차익이 분산되므로 세율이 낮은 구간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정부, 공공요금 인상 억제

금등 원자재·곡물에 할당관세 적용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원유·곡물 등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기존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추가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내놓은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3%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려던 난방유 세율인하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 세법 개정이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이익과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드시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해 기본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그는 또 중앙공공요금의 원가상승 요인은 공기업의 비용절감과 경영개선을 통해, 수도·가스·대중 교통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유가·주가하락에 소비 심리 위축

국제유가 상승, 주가하락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자대지수와 평가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1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대지수는 전달에 비해 1.3포인트 내린 102.0으로 집계돼 8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소비자대지수는 올해 2월 98.1에서 3월 97.8로 떨어졌다가 4월 100.1로 상승한 뒤 지난달까지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대지수는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넘어 아직은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비판적 견해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대지수는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6개월 후의 경기가 생활형편 등이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는 뜻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97.7로 10월(99.3)에 이어 2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아 향후 6개월 후의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았다. /연합뉴스

담합 7개 카드사에 28억 과징금

담합을 통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가·관리 수수료를 부담하게 인하한 신용카드사들과 결제정보처리(부가통신망·VAN)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민은행, 삼성카드, 현대카드, 옛 LG카드, 옛 신한카드, 한국외환은행, 롯데카드 등 7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8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옛 LG카드에 과징금을 완전 면제받았으며 삼성카드도 과징금중 50%가 감경됐다. 또 한국정보통신과 케이에스넷, 나이스정보통신 등 10개 VAN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19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한국신용카드결제사는 담합과정의 합의에만 참여하고 추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매출전표의 수가·보관업무(DC)를 VAN업체에게 위탁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를 담합해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내인생 이게 아닌데...

직장인 88% 30세 전후 인생 위기 느껴

서른 살 전후의 직장인들 대부분이 이른바 '오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28~32세 직장인 530명을 대상으로 '서른 살을 전후해 위기를 느끼고 있는가'라고 설문한 결과, 88.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그 원인으로 '앞날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29.8%)과 '꿈이나 적성에 맞지 않은 일'(27.2%) 등을 주로 꼽았다. '재취업 문제'(16.6%), '나이에 대한 주위의 압박'(14.0%), '청춘이 끝났다는 아쉬움'(11.2%) 등을 말하는 이도 있었다. 30대 전후 직장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은 오춘기로 인해 '내가 생각해 온 게 이게 아닌 데라는 석연치 않은 기분'(36.4%)에 휩싸이곤 했다. 다른 이들은 '특별한 일 없이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거나'(21.4%), '모든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경과민'(14.6%) 같은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탓인지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이나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들의 83.1%가 '그렇다'고 답하기까지 했다.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금리형도 '급등'

은행채 불안 탓... 일부는 年 9%대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의 상승으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등 장기채권금리가 채권시장의 불안과 맞물려 급등해 은행채와 CD의 금리 차이가 1%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와 고신한 3년 만기 은행채(AAA 등급) 금리는 5일 현재 연 6.65%로 작년 말(5.15%)보다 1.5%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CD 금리가 4.86%에서 5.66%로 0.80%포인트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은행채 금리가 CD 금리에 비해 2배 가까이 급격히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아파트 파워론 III'(이하 3년 고정금리)의 금리는 5일

현재 7.56~9.06%로 작년 말보다 1.44%포인트 인상됐다. 최고금리 기준으로 신한은행 '장기모기지론'은 같은 기간 7.23%에서 8.87%로 1.64%포인트, 국민은행 '포유장기대출'은 7.37%에서 8.86%로 1.49%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 '스와프연계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파생기법을 이용해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품들은 은행채에 연동해 고정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도 높아진 것이다. 더욱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 규모가 49조5천346억원으로 올 상반기보다 15조1천155억원이나 많고, 특히 1월에 10조5천266억원이 집중돼 있어 내년 초까지 은행채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만기가 집중되면 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이는 채권가격 하락(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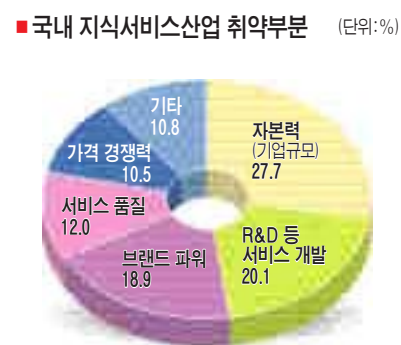
간식도 먹고 사랑도 나누고... 광주신세계가 6일 백화점내 직원식당에서 '2007 송년 이웃사랑 간식 바자'를 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5, 6일 이틀간 바자를 열었으며, 바자 수익금 전액을 연말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지식산업' 경쟁력, 선진국 67% 수준

자본력·연구개발·브랜드 파워 취약

사업서비스, 문화서비스, 금융·교육·의료 등 지식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 대상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정식)가 6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최근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 33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82.0%의 업체가 '다소'(64.9%) 또는 '매우'(17.1%) 열세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선진국을 100으로 봤을 때 국내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평균 67.7점 수준으로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서비스(73.0점)와 방송통신(70.4점), 금융서비스(70.3점) 등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고 사업서비스(59.8점), 문화서비스(64.9점) 등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꼽은 부분은 '자본력'(27%)과 '연구개발 등 서비스 개발능력'(20.1%), '브랜드 파워'(18.9%), '서비스 품질'(12.0%) 등 순이었다. 자사 주력 서비스의 사업전망에 대해 응답기업들의 53.5%는 '불투명하다'고 밝혀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 진전과 경쟁 심화 등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반영했다. 그러나 사업전망이 '밝다'고 밝힌 기



업도 46.5%로 적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지식서비스업은 이미 성장과 고용 측면에서 제조업 못지 않은 주요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 분야에서 선진국과 견줄만한 글로벌 기업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지식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중유동성 2,000조원 넘었다

3개월 연속 20조원대 증가세

시중유동성이 3개월 연속 20조원대 증가세를 유지하며 처음으로 2천조원을 넘어섰다. 양도성 예금증서(CD)·은행채 발행액 및 수익증권 설정액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증권금융 예수금도 일시적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에 따르면 10월말 광의유동성(L) 잔액은 2천163조3천억원(말잔)으로 9월말에 비해 23조9천억원이 늘었다. 이는 9월 증가액 20조6천억원보다 더 확대된 것이다. /연합뉴스

광의유동성증가액은 4월 13조9천억원, 5월 25조3천억원, 6월 35조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가 7월 1조7천억원으로 확연히 둔화했지만 8월(20조4천억원)부터 다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한 증가율은 12.8%로 9월(12.0%)보다 0.8%포인트 높아지면서 5월 이후 6개월째 12%대 증가율을 유지했다. 금융기관 유동성(Lf) 잔액은 10월중 1천665조원(이하 평잔)으로 전달보다 18조원이 늘었다. 월별 Lf 증가액 역시 6월 20조8천억원에서 7월 10조원으로 둔화했지만 8월 12조4천억원, 9월 13조2천억원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연합뉴스

코스피 美 훈풍 덕에 사흘째 상승

14.97포인트 ↑ ...1,950선 회복

전날 미국 증시의 상승 영향으로 코스피지수가 사흘째 상승세를 보였다. 6일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4.97포인트(0.77%) 오른 1,953.17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62포인트(0.22%) 오른 751.57에 마감했다. 상승세로 출발한 지수는 사흘만에 매수에 나선 외국인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1,972선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개인이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상승폭이 줄었다. 외국인은 사흘만에 '사자'에 나서 1천94억원 순매수를 기록했으며 기관도 1천68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3천148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전날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부추긴 경제지표 발표 등의 영향으로 이날 들어 처음으로 올라 다우존스지수가 전날보다 196.23포인트(1.48%) 상승한 13,444.96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휴먼전자	자동 프레스 경력재커터 및 터미널 경력자 우대	고졸/경력무관	2600~2800	12/07	062-600-7513
(주)아이넷스쿨	사무직 총무와 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8	062-418-5904
(주)대창E&T	[SK텔레콤]개통업무 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0	062-383-6831
한글과 컴퓨터 CO교육사업부	컴퓨터 방문 지도교사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2	062-373-5221
(주)미트엔트	경리, 회계, 서무 경력직 모집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13	062-945-5003
중앙생명보험	2008년 자산관리사 공채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3	062-226-4904
헬인컴	책임감있는 웹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14	062-225-2112
(주)H&T	[고정급1500만원/정규직] 114 인바운더 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12/14	062-350-6333
(주)성조	환영 및 재해영향평가	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14	062-511-2622
(주)밀리시스	총무/사무관리/재무/회계 총괄담당 직원 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4	062-972-0224
(주)Valex Korea	현금수송직원 채용합니다.(광주지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14	062-372-3660
원음전자	상품입출고 업무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15	062-514-1900
제이마스트디오	[광주점] 상담 촬영 및 어시 납품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2-3445-6117
케이.에스티.(광주지사)	다이렉팅기 보조업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62-610-584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